

# 企業內 工所權管理實態調查

## —技術導入 現況分析 등—

〈上〉 (1978. 12. 31. 現在)

### ① 調查의 概要

#### 1. 調查目的

本會는 우리나라 企業의 工業所有權制度運用이 어떠한 形態로 變遷되어 가고 있으며 그 問題點이 무엇인가를 深度있게 究明하여 發展的 制度補完의 基礎資料로 活用하고자 會員을 對象으로 本調査를 實施하였다.

#### 2. 調查對象 및 方法

① 1978年 12月 31日 現在 一般會員企業 149個社를 對象으로 企業內 工業所有權活用實態調査를 實施하였다.

② 本調査의 業種別 對象企業體數는 別表와 같이 化學部門이 40個社로서 그 構成比(26.8%)가 가장 높고 다음이 電子·電機部門이 25個社(16.78%), 金屬·機械部門 24個社(16.11%) 製藥·化粧品部門 19個社(12.75%), 纖維部門 17個社(11.41%), 食料品部門이 12個社(8.05%)이며 其他業種이 12個社의 順으로 構成되었다.

產業別 業體數

業 種 別	業 體 數	構 成 比
食 料 品	12	8.05
纖 維	17	11.41
化 學	40	26.85
製藥·化粧品	19	12.75
金屬·機 械	24	16.11
電子·電 械	25	16.78
其 他	12	8.05
合 計	149	100.0

### ② 調查項目別 動向分析

#### 1. 企業設立年條別 權利保有狀況

特許, 實用新案, 意匠, 商標, 營業標等 諸工業所有權을 保有하고 있는 本會 一般會員企業 149個社를 對象으로한 創業年度別 現況은 1897~1945년에 設立된 企業이 20個社, 1946~1955年이 27個社, 1956~1965年이 43個社, 1966~1975年이 51個社, 1976年 以後의 創業社는 8個社에 不遇하다. 〈表 1 參照〉

〈表 1〉

企業設立年條別 權利保有狀況

(單位: 件)

設 立 年 度	權利別		特 許		實用新案		意 匠		商 標		營 業 標		計	
	業體數		保有件數	平均件數	保有件數	平均件數	保有件數	平均件數	保有件數	平均件數	保有件數	平均件數	保有件數	平均件數
	業體數	構成比												
1897~1945	20	13.42	56	2.80	68	3.40	497	24.85	3,097	154.85	134	6.70	3,852	192.60
1946~1955	27	18.12	43	1.59	157	5.81	501	18.56	1,608	59.56	74	2.74	2,383	88.26
1956~1965	43	28.86	63	1.47	124	2.88	482	11.21	1,652	38.42	75	1.74	2,396	55.72
1966~1975	51	34.23	126	2.47	105	2.06	375	7.35	1,955	38.33	77	1.51	2,638	51.73
1976~1978	8	5.37	15	1.88	4	0.50	69	8.63	550	68.75	34	4.25	672	84.00
計	149	100.0	303	2.03	458	3.07	1,924	12.91	8,862	59.48	394	2.64	11,941	80.14

이처럼 創業年度를 10年單位로 區分하여 볼 때 해를 거듭할 수록 權利保有企業이 늘어남으로써 工業所有權 認識度가 차츰 높아지는 趨勢에 있다 하겠다. 특히 第 2次 經濟開發5個年計劃 期間中인 1966~1975年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1個社로서 가장 많은 創業을 하게 된 것은 外資 및 技術導入을 促進한 政府의 支援施策에 힘입은바 컸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 企業의 權利保有現況은 創業歷史가 오랜 1945年以前 創業한 企業 20個社가 保有하고 있는 權利가 3,852件으로서 1個社平均 192.6件으로 가장 많이 保有하고 있으며 1946~1955年 創業 27個社의 保有權利는 2,383件으로 1社 平均 88.4件, 1956~1965年 創業 43個社는 2,393件으로 1社 平均 55.7件, 1966~1975年 創業 51個社는 2,638件으로 1社 平均 51.7件, 1976年 以後 創業 8個社는 672件으로 1社 平均 84件으로서 本 調査에 應한 149個 一般會員企業의 總保有權利는 11,941件이며 業體當平均 保有權利는 80.1件으로 줄어 된다.

## 2. 工業所有權 權利別 保有狀況

1) 1978年 12月 31日 現在 特許廳에 設權된 諸權利는 總 111,872件으로서 이중 73.4%에 該當하는 82,062件이 內國人, 26.6%인 29,810件이 外國人의 保有權利로 構成되고 있다. <表 2 參照>

2) 이들 權利別로 보면 商標가 56.7%에 該當하는 63,439件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意匠이 27,000件 (24.1%), 實用新案이 15,412件(13.8%)인데 比하여 高度의 技術的 創案을 必要로 하는 特許는 5.43%에 不過한 6,021件이다.

3) 이와같은 國內에 設權된 內外國人別, 權利別現況에 비추어 볼 때 會員企業이 保有하고 있는 權利는 總 11,941件으로서 全體權利의 10.67%에 該當하며, 權利로는 特許가 5.03%인 303件, 實用新案은 3.0%인 458件, 意匠이 7.1%인 1,924件, 商標가 14.0%인 8,862件이다.

이에 따라 內國人 保有權利中 75%이상인 個人 保有權利인을 勘案할 때 企業의 工業所有權取得을 위한 新技術開發投資意慾과 企業內 職務發明氛圍氣 造成이 아쉬운바 있으며 그나마도 國內企業이 保有한 權利의 58%를 本會 會員企業이 保有하게 된 것은 바람직한 結果라 하겠다.

## 3. 業種別 權利保有狀況

### ㄱ. 特許

業種別 權利保有現況을 보면 特許는 科技研等 特許開發用役專門機關을 中心으로한 其他 業種部門이 81件으로 가장 많고 製藥·化粧品部門이 65件, 化學部門이 64件, 纖維部門 32件, 食料品部門 27件的 順이다. 業體當平均 保有件數는 其他業種部門이 6.8件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製藥·化粧品部門 3.4件, 食料品部門 2.3件, 纖維部門 1.9件, 化學部門 1.6件임에 反하여 金屬機械部門이 0.9件, 電子·電機部門이 0.5件으로 權利保有率이 낮은 것은 機械, 電子分野의 開發投資가 低調하다는 것을 立證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全般的으로 業體當 平均 保有權利는 2.0件에 不過하다.

### ㄴ. 實用新案

한편 實用新案은 先進技術의 導入改良에 關心을 갖

<表 2>

工業所有權 權利保有狀況(全體對 會員比較)

(單位: 件)

權利別	區分 會員企業 (A)	全 體			構 成 比 (%)		
		內國人(B)	外國人(C)	計(D)	A : B	A : C	A : D
特 許	303 (2.54)	3,830	2,191	6,021	7.91	13.83	5.03
實 用 新 案	458 (3.84)	15,328	84	15,412	2.99	545.24	2.97
意 匠	1,924 (16.11)	26,733	267	27,000	7.20	720.60	7.13
商 標	8,862 (74.21)	36,171	27,268	63,439	24.50	32.50	13.97
營 業 標	394 (3.30)						
計	11,941 (100.0)	82,062	29,810	111,872	14.55	40.06	10.67

註: 1) 營業標의 (B), (C), (D)에 대한 構成比는 (B), (C), (D)의 集計가 없어 算出不能

2) ( )內는 構成比

고 있는 電子·電機部門이 139件으로 가장 많고, 化學部門이 124件, 金屬·機械部門 86件, 食料品部門 40件 其他部門 33件, 製藥·化粧品部門 25件, 纖維部門이 11件으로 가장 낮으며 全般的으로는 業體當 3.07件的 權利를 保有하고 있다.

ㄷ. 意 匠

意匠은 總 1,924件中 플라스틱을 金型으로 디자인한 化學部門이 598件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食料品部門 475件, 製藥·化粧品部門 384件 電子·電機部門 276件 纖維部門 141件的 順이다.

業體當 平均 保有權利數는 食料品·包裝디자인을 小數 大企業이 保有함으로써 食料品部門이 39.58件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製藥·化粧品部門이 20.21件, 化學部門 14.95件, 電子·電機 11.04件, 纖維部門 8.29件 등의 順이며 業體當 12.91件的 權利를 保有하고 있다.

ㄹ. 商 標

商標은 多様な 商品包裝을 필요로하는 食料品部門 (2,579件)과 製藥·化粧品部門(2,046件)이 가장 많고 化學部門 1,590件, 纖維部門 1,585件, 電子·電機部門 602件, 金屬·機械部門 499件 其他 11件的 順이며 業體當 平均 保有權利數는 食料品이 214.92件으로 가장 높는데 비추어 其他部門이 0.92件으로 가장 낮다.

그리고 全體的으로 業體當 平均 保有權利는 59.48件으로서 權利中에서 가장 높은 構成比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權利別로 業體當 平均水準을 上廻하는 業種은 食料品部門, 製藥·化粧品部門, 纖維部門이며 이들 業種은 實用新案을 除外한 餘他權利에서 平均水準을 上廻하고 있는데 비하여 그의 業種은 平均水準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아직도 業種別로 工業所有權의 關心度에 隔差가 있음이 立證된다.

4. 資本規模別 權利保有狀況

ㄱ. 特 許

資本規模別 權利保有狀況은 100億원이상 規模의 大企業 35社가 保有한 權利는 53件, 75億원 이상 5社의 保有權利는 18件, 50億원이상 12社가 28件, 35億원이상 11社가 36件, 25億원이상 12社가 21件, 15億원이상 26社가 25件, 1億원이상 32社가 35件, 그리고 1億원이하 16社가 86件으로 集計되었다.

ㄴ. 實用新案

한편, 實用新案은 100億원이상의 35個 企業이 161件으로 가장 많이 保有하고 있으며 다음은 1億원이상 規模企業이 95件이고 1億원이하 16社가 65件, 15億이상 26社가 42件, 50億원이상 12社가 40件, 35億원이상 11社가 27件등으로 分析되었으며 業體當 平均保有權利는 100億원이상 規模企業이 4.60件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1億원이하 規模企業이 4.06件인데 比較하여 25億원이상 規模業體가 가장 적은 0.92件에 不過하다.

ㄷ. 意 匠

意匠은 100億원이상의 35個 企業이 982件으로 가장 많이 保有하고 있으며 다음이 50億원이상의 12個企業의 199件, 1億원이하 16社는 24件으로 나타났다.

한편 業體當 平均保有權利는 75億원이상5社의 36.00件이 가장 많으며 역시 1億원이하 16社는 1.50件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ㄹ. 商 標

商標은 100億원이상 企業이 3,359件으로 가장 많고 1億원未滿의 16企業은 59件에 不過한데 業體當 平均保有件數는 75億원이상의 5個企業이 217.20件인데 比較하여 1億원 未滿企業은 겨우 3.69件에 不過하다.

全體的으로 業體當 平均 保有件數는 80.14件으로서

<表 3>

業種別 權利保有狀況

(單位: 件)

業 體 別	權利別		特 許		實 用 新 案		意 匠		商 標		營 業 標		計	
	業體數	構成比	保有件數	平均件數	保有件數	平均件數	保有件數	平均件數	保有件數	平均件數	保有件數	平均件數	保有件數	平均件數
食 料 品	12	8.05	27	2.25	40	3.33	475	39.58	2,579	214.92	65	5.42	3,186	265.50
纖 維	17	11.41	32	1.88	11	0.65	141	8.29	1,585	93.24	92	5.41	1,861	109.47
化 學	40	26.85	64	1.60	124	3.10	598	14.95	1,590	39.75	68	1.70	2,444	61.10
製藥·化粧品	19	12.75	65	3.42	25	1.32	384	20.21	2,046	107.68	67	3.53	2,587	136.16
金 屬 · 機 械	24	16.11	21	0.88	86	3.58	46	1.92	449	18.71	64	2.67	665	27.75
電 子 · 電 機	25	16.78	13	0.52	139	5.56	276	11.04	602	24.08	38	1.52	1,068	42.72
其 他	12	8.05	81	6.75	33	2.75	4	0.33	11	0.92			129	10.75
計	149	100.0	303	2.03	458	3.07	1,924	12.91	8,862	59.48	394	2.64	11,941	80.14

이 平均値를 上廻하는 資本規模別業體는 75億원이상의 5社가 268.0件으로 平均 保有件數의 約 3.4倍이고 다음이 100億원이상 企業의 136.37件, 35億원이상 企業의

122.55件, 그리고 50億원이상 企業의 105.92件的 順이며 나머지는 모두 平均値를 훨씬 밑돌고 있다.

<表 4>

資本規模別 權利保有狀況

(單位: 件)

資本金規模 (億圓)	權利別		特 許		實用新案		意 匠		商 標		營 業 標		計	
	業體數	構成比	保有 件數	平均 件數	保有 件數	平均 件數	保有 件數	平均 件數	保有 件數	平均 件數	保有 件數	平均 件數	保有 件數	平均 件數
100以上	35	23.49	53	1.51	161	4.60	982	28.06	3,359	95.97	218	6.23	4,773	136.37
75~	5	3.36	18	3.60	17	3.40	180	36.00	1,086	217.20	39	7.80	1,340	268.0
50~	12	8.05	28	2.33	40	3.33	199	16.58	977	81.42	27	2.25	1,271	105.92
35~	11	7.38	36	3.27	27	2.45	149	13.55	1,119	101.73	17	1.55	1,348	122.55
25~	12	8.05	21	1.75	11	0.92	145	12.08	234	19.50	32	2.67	443	36.92
15~	26	17.45	25	0.96	42	1.62	118	4.54	1,080	41.54	22	0.85	1,287	49.50
1~	32	21.48	36	1.13	95	2.97	122	3.97	948	29.63	39	1.22	1,245	38.91
1以下	16	10.74	86	5.38	65	4.06	24	1.50	59	3.69			234	14.63
計	149	100.0	303	2.03	458	3.07	1,924	12.91	8,862	59.48	394	2.64	11,941	80.14

<계 속>

—30面에서 계속—

따라서 신상품을 연구끝에 개발하였다하여 만족하여서는 안되며 계속 연구노력하여 보다 나은 개발상품에 역점을 두고 또 自己周圍(同種業界)를 放心 말고 항상 觀察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자기의 周圍를 항상 관찰하여 자기의 개발품을 他人이 기초로 하여 새로운 同種의 상품이나, 또는 模倣品이 生産되는가를 洞察하여야 할 것이며 또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개발품을 保護育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기의 노력으로 개발한 상품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재산이므로 이를 타인에 의해 侵害를 당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계속 자기의 財産을 보호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자기의 상품(고안)을 保護하려면 자기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일이며, 이것을 安全하게 保持하려면 工業所有權法에 의존하여야 될 것이다.

自由競爭社會에서는 질이 좋고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주변에서 모방품이 나오게 되므로 새로운 판매경쟁이 發生하게 되며 자기의 개발품만이 獨占排他的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法의 保護를 받아 자기의 무형의 財産을 지키려면 우선 公業소유권법에 의하여 特許出願을 하여

特許登錄을 받아놓아야 特權을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자기의 財産을 侵害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특허출원이란 自然法則을 이용하고도 기술사상으로 고안된 발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과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色彩 또는 이들의 결합한 視覺을 통한 미감을 가진 의장고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小發明을 출원하여 특허를 받아놓으면 자기의 개발품이 타인으로부터 保護를 받을뿐만 아니라 獨占排他的인 權利를 갖게 되고 또 수요자로부터 信用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恒時 研究開發하여 새로운 상품에 역점을 두고, 또한 자기주변에서 자기의 개발품과 같은 모방품이나 類似品이 나오는 것을 法에 의하여 막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는 수요자의 利益을 保護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발상품과 특허는 不可分의 관계다 生覺되며, 신상품은 타상품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生産業者는 항상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품질향상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